



#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예배

---

일시: 2023년 5월 28일(일) 11시

장소: 언덕교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9 파고다학원 7층)

설교: 방인성 목사

유튜브 '건작연'에서 온라인 동시 중계



건강한작은교회연합

# 예배 순서



예배의부름	김태완 목사, 언덕
-------	------------

경배와찬양	이승예 집사, 언덕
-------	------------

공동기도	한국 교회를 위해 한국 사회를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조민호 집사, 새맘 최미정 권사, 새맘 이병환 집사, 새맘
------	--------------------------------------	--

성경읽기	마가복음 4장 1-9절	박승남 장로, 예인
------	--------------	------------

특송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새맘 남성 중창단
----	-------------	-----------

설교	씨뿌리는 작은 교회들	방인성 목사
----	-------------	--------

찬양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다 함께
----	---------------------	------

성찬	이수연 목사, 새맘 주영관 목사, 너머서
----	---------------------------

봉헌기도	주혜린, 너머서
------	----------

파송의노래	손잡고 함께 가세	다 함께
-------	-----------	------

공동축도	박영춘 장로, 예인
------	------------



# 예수 예수

김도현

A E/G# D/F# A/E DM7 A/C# Bm7 E

슬픈마음있 는자 - 몸과영혼병 든자 - 누구든지부르시오 - 예 - 수이름부르시오 -

5 A E/G# D/F# A/E D C#m F#m Bm E A D/E

그이름을믿 는자 - 그이름을부르는자 - 그가어떤사람이든 - 그는 구원얻 - 으리 -

10 A Bm7 A/C# D C# F#m Em7 D C#m F#m Bm E A Bm7 A/C#

예 - 수 - 예 - -수 - 오 - 능 력의-그 이름예 수- 나 외 처부-르-네 - 예 - 수 -

15 D C# F#m Em7 D C#m F#m Bm E A Bm7 A Bm7 D/E

예 - -수 - 오 - 구 원의-그 이름예 수- 나 외 처부-르-네- 예수그 리스 도

20 A E/G# D/F# A/E DM7 A/C# Bm7 D/E

은과금내게없으나 - 나 가진것너에게주니 - 능 력의이름예 수라- 그 - 이름을볼드시오 -

24 A E/G# D/F# A/C# D C#m F#m Bm7 E

그이름을믿 는자 - 그이름을외 치는 자 그 -가어떤사람이든 - 그는 - 주의 영 광보 - 리라

28 A D/E A D/E G D/F# Dm/F A/E A/C#

D.S. al Coda

- - 우리게 주 신영광 의 이름 나 어찌잠잠 하리 - 세 상

32 D 3 3 3 A/E E Cm/F Eb/F F Bb Cm7 Bb/D

예크 게 외 처부 르리 나 의 주 예 수 그리스도 - 예 - 수 -

36 Eb D Gm Fm7 Eb Dm Gm Cm F Bb Cm7 Bb/D

예 - -수 - 오 - 능 력의-그 이름예 수- 나 외 처부-르-네 - 예 - 수 -

40 Eb D Gm Fm7 Eb Dm Gm Cm F Bb

예 - -수 - 오 - 구 원의-그 이름예 수- 나 외 처부-르-네- 예수그 리스 도



#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고형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이름 예수는 주-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주님



예수는 주-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주-

Copyright (C) 고형원 .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 288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204)

보통으로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다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 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5월의 싱그러운 봄날이 흐르고 있습니다. 꽃잎은 지고 잎들은 푸르게 자라나는 신록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욕망할 대로 욕망하고 편리해질 대로 편리해져버린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통렬한 반성과 회개와 성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권리에서 차별과 배제에 신음하며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서로 돌보며, 사랑하고,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국가와 사회를 향한 막중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담대히 실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혁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건강한 작은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조민호, 새맘교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 당리당락의 늪에 빠져 있는 무능한 정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경기침체와 고물가,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서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겨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이 사회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에 공정함과 정의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부당한 억압과 부패, 불공평한 대우가 사라지고,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등과 분열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기 원합니다.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고, 다양성과 인종,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최미정, 새맘교회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특별히 사회적 참사로 고통받아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상심과 슬픔을 달래주시고, 그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투쟁할 때, 주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존엄한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며 투쟁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생존과 존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 차별과 배제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장애인들, 그리고 소수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마음이 소외된 이들을 향한 따뜻함과 관심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동으로 주님께 올리는 기도를 저희에게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이들이 되어 소외된 이웃 곁에 머물게 하셔서, 그 온기로 그들이 하루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지속적인 연대와 돌봄의 일들이 건강한 작은 교회로 연대하는 교회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 2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 3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4 뿌릴새 더러운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 5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 7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 8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 9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433

##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통일 490)

L. N. Morris, 1898

Nearer, still nearer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 4:8)

주와 동행

MORRIS: 9.10.9.10.10.

L. N. Morris, 1898

조금 느리게

1. 귀 하 신 주 여 날 붙 드 사 주 게 로  
 2. 봉 헌 할 물 전 나 없 어 도 주 매 다  
 3. 간 악 한 마 귀 나 피 어 도 주 예 수  
 4. 이 세 상 내 가 살 동 안 에 주 주 계

로 다 수로  
 계 매 예 계  
 주 주 예 계  
 주 주 예 계

나 날 주 앞  
 다 마 다 더 가 까 이  
 더 가 까 이  
 더 가 까 이

저 하 늘 나 라  
 내 죄 를 주 게  
 이 세 상 주 속  
 저 보 는 천 국

나 올 라 가 구 주 의 품 안 에 늘 안 기 어  
 다 그 하 니 주 님 의 보 혈로 날 씻 으 사  
 나 들 어 가 한 추 생 각 을 다 버 리 니  
 록

영 생 의 복 받 기 원 합 니 다  
 능 보 다 더 희 계 하 읊 소 서  
 정 결 한 맘 은 내 헤 늘 주 소 소 서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1st) D<sup>b</sup>→C A<sup>b</sup>→G B<sup>b</sup>m→Am G<sup>b</sup>→F E<sup>b</sup>7→D7



## 주영관 목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형제 자매  
된 건작연 회원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서 하나  
님 나라의 잔치를 나누려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는 그 어떤 차별이나 경계가 없습니다. 주  
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  
십니다.

## 이수연 목사

이제 우리, 주님의 식탁에 다 함께 모여 하나  
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거룩한 하  
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주영관 목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집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 이수연 목사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내 피로 맺는 새로운 언약의 잔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 주영관 목사

사랑의 주님! 주님은 죽어가는 모든 연약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식사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나눌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소서.

## 다함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따라 살 것입니다. 아멘.



## 이수연 목사

이제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기꺼이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건작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 다함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찬위원들은 "생명의 빵, 구원의 잔 입니다"라고 말하며 '떡과 잔'을 교우들의 손에 나누어 줍니다.





## 다함께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온몸을 내어 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둠과 악함을 이기며 참 자유인의 삶  
을 살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손 잡고 함께 가세

전은주

A B/A G#m7 C#m7

우리 걸어—가는 이—길 이 결코 처음—밟는 길—은 아니—야— 수

5 A E/G# F#m7 B

—천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흔적 있—으 니 우리

9 A B/A G#m7 C#m7

걸 어—가는 이—길 이 낮 설 고 두—려워 보—일 지 라—도— 삶의

13 A E/G# F#m7 B(sus4)

무 게를 뚫고— 흘 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17 (Am<sup>9</sup> Bm<sup>7</sup> C D) B E F#m7 A

— 우리 함 께—손 잡 고—가 세 조금 느 리—고 어 려—울 때론 더 디—고 힘 겨—울

21 B(sus4) B G#m7 G#7 C#m7

지 라—도— 주님 부 르—신 그 감—격 불 잡—고— 지 라—도— 주님 부 르—실 그 날—을 향 하—여—

24 1. A B(sus4) B 2. A B E

손 잡 —고 함 께—가 세 우리 손 잡 —고 함 께—가 세

Transcribe by UNIVERSE  
blog.naver.com/renaissancea



### 자 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을 지켜 주시기를,

### 형 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풀  
주시기를,

### 다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  
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1. 건작연 연합 예배에 장소를 제공해주신 언덕교회와 참여해주신 회원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건작연 연합예배 헌금은 소속 교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상반기에 제 1회 건강한 작은 교회 아카데미를 회원교회 교우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잘 마쳤고, 회원 교회 간의 강단 교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온라인 포럼을 계획 중인데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모든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건강한 교회의 가치를 한국 교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건작연의 외연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개인도 건작연의 회원으로 받기로 했고, 뜻을 같이하는 교회들을 회원교회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허입된 개인 회원 2명, 회원교회 1곳(전주복음자리교회)
5. 주변에 '민주적인 교회 운영', '재정 투명성', '작은 교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나 이것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 있다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교회의 건작연 운영위원회에게 소개를 해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에 협조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건작연)’은 건강한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간 연합기구로서 회원교회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을 전개하며, 교회개혁 시민단체를 지원 협력하고, 건강한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이 추구하는 교회는 ‘건강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건작연은 크게 **세 가지 교회 운영 방향**을 정했습니다.

- 1.민주적 교회 운영
- 2.투명한 재정 운영
- 3.평신도 중심 운영

이는 목회자 한 사람이나 교회 소수 리더들이 교회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닌 교인 전체의 의사를 교회 운영에 반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만들어 낸 제도가 **민주적 정관(규약), 직분의 재신임제, 투명한 재정 공개, 예배만을 위한 공간 갖지 않기** 등이었습니다.

건작연에는 '여섯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1. 작음, 나눔, 비움의 성경적 가치
2. 신앙과 삶의 진실한 공동체
3. 가치 중심의 연합
4. 신자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
5. 민주적 운영과 재정 투명성
6. 목회자와 일반성도의 동역

2023년 5월 현재 회원교회

너머서교회, 새맘교회, 언덕교회, 예인교회, 전주복음자리교회 (총 5개)